

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 <p style="margin: 0;">2014. 2. 3.</p>	 <h2 style="margin: 0;">대 법 원</h2> <p style="margin: 0;">Supreme Court of Korea</p>	
	담당부서	인사총괄심의관실
	담당자	제1심의관 배용준 (☎3480-1274) 제2심의관 이흥주 (☎3480-1289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2014. 2. 3.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

- 대법원은 2014. 2. 3. 11: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음
-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<법조일원화 실시에 따른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>에 따라 2012년 처음 시행한 것으로, 2013년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임용절차를 진행, 오늘 전담법관 임명에 이룸
-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

1. 행사의 내용과 특징

- 대법원은 2014. 2. 3. 11:00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였음
-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게 일일이 법복을 직접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음

2. 전담법관제도 도입 및 시행 경과

- 전담법관제도 도입 경과

-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2012. 5.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,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기 중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'전담법관제도'의 도입을 건의하였고,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

- 전담법관제도 시행 성과 및 전망

- 2013년에 최초로 임명된 전담법관 3명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 배치되었음
- 첫째 제도 시행 결과 소액전담법관제도가 재판진행의 효율성, 법관들 사이의 업무협업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법원 내외로부터 소액전담법관제도에 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
-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전담법관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따라 소액전담법관제도를 꾸준히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에도 소액전담법관의 선발절차를 진행하였음
- 전담법관제도는 향후 그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가사·소년보호 등 다른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임

3. 신임 전담법관 임용

- 임용심사 개요

- 대법원은 원숙한 법관에 의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하기로 하였고, 나아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음
- 구체적으로 전담법관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,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하여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였음

- 임용심사 경과

- 2013. 8. 22. 『2014년도 상반기 전담법관 임용 계획』을 공고함
-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,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하였고,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증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함
-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명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함
- 이번에 임용된 전담법관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명, 서울남부지방법원 1명, 대구지방법원 1명 등 총 3명으로 2014. 2. 3.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2주간의 신입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2014. 2. 24.자 정기인사에 맞추어 해당 법원에 배치될 예정임

- 2013년 대비 임용자 특징

- 2013년에 최초로 임명된 전담법관 3명은 임용 직전 모두 변호사로 활동하였음
- 이번 임용대상자는 아래 명단과 같은바, 변호사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음. 다양한 경험 및 학계의 법학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- 명단(가나다順)

연번	직위	성명	기수	연령
1	대구지방법원 판사	김진석	26	54
2	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	박정호	15	53
3	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	홍성만	13	61

- 직역별 분포

- 변호사 2명, 교수 1명(김진석 판사,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